

## 스브스 뉴스

### 시리즈 콘텐츠

〈문명특급〉

〈돈워리스쿨〉

〈스쿨버스〉

1억 뷰 돌파!

SBS는 전통 미디어의 뉴미디어 성공 사례로 첫 손에 꼽힌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는 2017년, 2018년 '디지털 전략을 가장 잘 실천하는 언론사'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그 중심엔 스브스뉴스가 있다. 2015년 국내 최초의 카드뉴스로 시작해 이제는 모바일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제작 집단으로 진화한 스브스뉴스는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 40만 명을 돌파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3대 플랫폼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스브스뉴스의 대표 시리즈 콘텐츠를 소개한다.

#### 〈문명특급〉 연출: 홍민지, 구성 및 진행: 이은재, 조연출: 김희연

스브스뉴스 PD인 재재(이은재)가 주인공이 되어 2030의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 현장을 찾아가거나, 2030에게 인기 있었던 2000년대 K팝스타, 유튜브 셀럽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야외 버라이어티 형식의 오리지널 웹 교양+예능 콘텐츠이다.

매주 1회 방송되며, 66회까지 업로드된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대 플랫폼의 누적 조회가 총 6,600만을 넘어섰다. 주인공인 재재는 '연반인'(연예인과 일반인의 중간 개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에는 문명특급 팬들과의 소통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스브스뉴스와 채널을 분리해 단독 채널을 개설했다.

#### 〈돈워리스쿨〉 연출: 하현중, 작가: 이상미, 최유진, 임현수

2030의 눈높이와 관심사에 적합한 재테크 꿀팁과 경제 정보를 2030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풀어주는 스튜디오 토크 포맷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래퍼 단딘, 장예원 아나운서, 김윤상 아나운서, 그리고 재야의 경제 고수 돈샘(정현두)이 진행하며, 주 1회 시즌제로 방송 중이다. 30회까지 업로드된 현재, 3대 플랫폼 누적 조회 수는 총 2,300만을 넘어섰다.

TV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도 제작되어 5월과 6월에 걸쳐 4회가 방송되었으며, 정규 또는 시즌제 TV 편성을 추진 중이다.

#### 〈스쿨버스〉 연출: 이에나, 구성 및 진행: 김미정

스브스뉴스 PD인 제티(김미정)가 전국의 특이한 고등학교나 고등학생 셀럽을 찾아가 현장을 탐방하는 야외 버라이어티 형식의 웹 예능 콘텐츠이다. 주 1회 방송으로 18회까지 업로드된 지금 3대 플랫폼 누적 조회 수는 1,100만을 넘어섰다.

스브스뉴스 세 개 시리즈 콘텐츠의 현재까지의 3대 플랫폼 누적 조회 수는 무려 1억 뷰를 돌파했다. 이외에도 스브스뉴스에서는 콘텐츠 포맷을 영상으로 전환했던 1~2년 전부터 <다시 만난 세대>, <6시 내 취향>, <3분 시사 상식>, <레이바>, <취미 흥신소> 등 다양한 모바일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 및 론칭했고 큰 성과를 냈다.

보도본부 뉴미디어제작부 하현중 스브스뉴스팀장은 "시리즈 콘텐츠는 데일리 이슈 리포트, 브랜드 콘텐츠와 더불어 스브스뉴스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2030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브스뉴스는 2030을 겨냥한 강력한 시리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 제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뿐 아니라 TV와 OTT 등 매체를 넘나드는 최고의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제작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칠까!! (너무 궁금했어)

오케 오케 알겠습니다x2

## 베트남판 런닝맨 <Chay Di Cho Chi> 2억 6천만 뷰 돌파하며 종영 베트남 2019 상반기 최고 예능 프로그램 선정



4월 6일 첫 회를 시작한 베트남판 런닝맨 <Chay Di Cho Chi>(짜이띠쪄찌/연출: 최소형)가 7월 20일 15회를 끝으로 시즌 1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 <Chay Di Cho Chi>는 각종 지표에서 전대미문의 기록을 보이며 돌풍을 불러일으켰다. 첫 회가 유튜브에 업로드 되자마자 전 세계 유튜브 트렌딩(단 시간 인기 급상승) 수치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3일 현재 누적 조회수 2억 6천만 뷰, 구독자 수도 125만 명을 넘어서 유튜브 측으로부터 'Gold Button'을 받았다. 베트남판 런닝맨의 현지 제작사인 LIME 엔터테인먼트의 윤상섭 대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베트남에서는 TV보다 모바일로 콘텐츠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TV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등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 등이 실질적인 시청자 반응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ay Di Cho Chi>는 베트남 소셜미디어 분석 업체 '유넷미디어(YouNet Media)'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베트남 예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유튜브, 페이스북, 온라인 뉴스 등 베트남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한 버즈량과 프로그램 재생 수를 합산하여 발표한 순위로, <Chay Di Cho Chi> 첫 방송이 4월임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성적이다.

출연자들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져 7명이 10개 이상의 CF에 출연했으며, 방송이나 영화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출연자들은 "《런닝맨》 덕분에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SNS 등을 통해 시즌 2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 베트남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름표 떼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제작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SBS는 <Chay Di Cho Chi>를 통해 경제적 한류를 실천하기도 했다. 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과 손잡고 간접광고와 PPL 등을 통해서 48개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베트남 안방에 소개했다. 또한 시즌 1의 성공으로 앞으로 제작될 시즌 2에 각종 기업들과 현지의 공동 투자자, 협찬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런닝맨>의 글로벌 제작 총괄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안철호 PD는 "이번에 방송된 HTV7(호치민 소재) 외에 VTV3(하노이 소재/베트남 시청점유율 1위)에서도 시즌 2 방송을 타진해 오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  
탐방

### '끝까지 판다' 강하면서로 친근한 브랜드 이어갈 것

- 보도국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 팀(탐사보도팀)

#### 탐사보도팀이 하는 일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성격이 없는 진짜 스토리를 찾아내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아무 거나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파야할 것을 파는 것, 결국 시청자를 위해 파는 게 우리의 일이다.

#### 최근 활약이 눈부시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의혹'과 '정준영 단독방과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가 상반기에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이슈는 우리 팀이 처음 단서를 포착하고 취재를 시작, 보도하여 전 국민이 아는 이슈가 됐다. 손혜원 보도 당시에는 논란도 많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우리가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수사로 확인하고 재판에 넘김으로써 일단락됐다. 정준영 보도 역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고 현재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하나투어 갑질' 보도로 하나투어 본사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냈고 '소방장비 20년 독점 납품' 보도로 소방청장 사과 및 개선 약속이 이뤄졌다. 또 '효성그룹의 수상한 전관 변호사 수임 의혹'도 보도했다. 이런 보도들로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또 사내 특종 및 기획상을 다수 수상했다.

#### 팀원 소개를 부탁한다.

경륜 있고 개성이 강한 기자들로 팀이 꾸려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병희 팀장은 탐사보도팀의 전신인 기획취재부가 꾸려질 때 초창기 멤버로 합류했고, 지난해 '에버랜드와 삼성 차명 부동산'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김지성 기자는 2010년 '유명한 외교부장관 딸 특채'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고, 이

한석 기자는 '국세 사기 사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비리' 등 다수의 특종을 했다. 최고운 기자는 '작전 중 부상 군인에 치료비 청구' 보도로 2015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이현정 기자는 2017년 '국정원 특활비' 보도로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받았다. 강청완 기자는 지난해 '라돈 침대 특종'을 보도했고 최근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로 합류한 배여운 기자는 지난해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대상상을 받은 실력자다. 최근 국내 최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의 실체를 발굴 보도한 박재현 기자가 얼마 전 막내로 합류했다. 영상취재팀의 '브레인' 조창현 기자와 김준호 VJ가 탐사보도팀의 모든 영상과 제작을 도맡고 있고, 탁지연 작가 역시 일당백의 몫을 하고 있다. 대학생 인턴인 이주현 스크립터도 가장 중요한 '굿은일'을 맡고 있다. 팀워크에서 SBS 그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 주목받는 팀이다. 각오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특종이 이어지면서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타 언론사 등 외부의 문의도 부쩍 늘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 '끝까지 판다'는 SBS 보도사에서 보기 드문 브랜딩 성공 사례라고 한다. 단기간에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덕분에 많은 선배배들의 노력 덕분이지만 운도 따랐다. 최근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사가 탐사보도의 중요성에 주목해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렵게 일군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쪽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탐사보도를 계속하겠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 <김영철의 파워FM> '1,000일 기념 브런치쇼' 진행

7월 19일(금)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이 1,000회를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 특집 '철파엠 1,000일 기념 브런치쇼'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DJ 김영철은 스튜디오를 찾아준 13명의 청취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고, 방송이 끝난 후엔 구내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영철은 "어느덧 <철파엠>이 1,000일이 됐다. 이른 아침부터 <철파엠>을 찾아주시는 많은 청취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철업디'(\*Cheer up DJ)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방송 1000회를 맞은 소감을 전했다.

2016년 10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한 <김영철의 파워FM>은 첫 분기에 청취율 순위 15위로 시작했으나 6개월 만에 5위로 뛰어오른 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107.7MHz)에서 방송되며,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다.



## <좋은 아침> 7월부터 UHD로 선보여



<좋은 아침>이 7월부터 등촌동 공개홀에서 UHD 중계차로 제작, 방송되고 있다. 현재 월요일, 금요일 방송분만 UHD로 제작하고 있지만, UHD 편성 비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좋은 아침> 협력제작사인 오렌지공작소의 김영철 PD는 "UHD로 첫 제작 후 일의 로드가 전보다 많아 부담은 됐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기술은 진일보해야 한다. 이제는 UHD 방송 화면을 신선한 기획과 아이디어로 채우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 기술국은 지상파 최초의 UHD 실시간 종편작업을 위해 핵심 장비인 UHD 에디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UHD 리니어 종합편집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UHD <좋은 아침>과 같은 일일 녹화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기존 HD 종편과 같이 리니어한 방식의 UHD 종편 제작이 필수적이며, 타사와 같은 파일기반의 NLE(Non-Linear Editor)로는 작업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UHD 리니어 종합편집실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향후 UHD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인터뷰  
이 사람



## 사내벤처 포매티스트, 전대미문의 기록 세운다

- 예능본부 글로벌제작사업팀 김일중 부장

### 포매티스트가 작년 말 설립됐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주)포매티스트(FormatEast)는 SBS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글로벌 포맷 제작·유통사다.

<복면가왕>이 미국에서 <The Masked Singer>로 초특급 히트를 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 등에서 한국 포맷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또한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도 필요했다. 포맷티스트는 그동안 SBS가 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해야만 했던 포맷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사명의 뜻은 이러하다. 글로벌 포맷 비즈니스산업은 유럽, 미국 등 서구(West)에서 탄생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포맷 수급지는 한국, 중국, 일본, 터키 등 동양(East)이다. 그래서 포맷과 동양(East)을 합쳐 포맷티스트(FormatEast)로 사명을 정했다.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SBS 밖에서 훌륭한 포맷 IP를 발굴하여 SBS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유통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능 프로그램의 원천 소재를 발굴, 개발 및 공급하는 병참기지인 셈이다.

### 어떻게 구성되었나?

글로벌제작사업팀에서 작년 여름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사내벤처의 모양새로 법인화하기로 한 것은 지금은 없어진 미디어비즈니스센터에서였다. 6개월간의 기간 검토를 거쳐 작년 12월 법인이 설립됐다. 현재는 조직 개편으로 예능본부 산하가 된 글로벌제작사업팀의 관련 팀원들이 겸직하고 있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수익도 100% SBS로 귀속된다.

### 그동안 한 일은?

포맷 IP의 개발과 유통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IP를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했다. 마침 올해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유사한 취지의 포맷랩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 지원했는데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포맷티스트 크리에이티브 랩(FormatEast Creative Lab, 줄여서 FC LAB) 사업이다. 국내 톱클래스의 예능작가 10명(곽상원, 김미경, 김미연, 김세화, 김지윤, 박원우, 박지은, 박해선, 이현희, 임채윤)을 선발해 매월 국가 예산으로 기획비를 지급하며 예능 포맷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기획안들은 기획자와 포맷티스트가 반씩 IP를 공유한다. 연말까지 50개 가량의 프로급 기획안들을 갖고 MIPCOM과 LA Screening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SBS6 등 유력 상업 채널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대형 포맷사인 탈파, 그리고 미국의 6대 에이전시 중 하나인 UTA와 그 계열 제작사들, 그 외 영국의 신흥 포맷사인 더스토리랩 등과 구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는 절강위성, 그리고 알리바바의 알리픽처스 등과 협의 중이다.

기획안, 즉, 페이퍼 포맷은 거래가 매우 힘든 상품이다. 실제 제품이 아닌 설계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이 글로벌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 낸 건 그동안 SBS 글로벌제작사업팀이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덕분이다. 특히 지난 6월 말에 목동사옥 13층에서 개최된 FC LAB 제2차 세미나의 강사로 왔던 탈파네트워크의 포맷구매담당 상무 Lisette van Diepen이 1차 기획안 중 4편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표시해 왔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포맷티스트의 기획안이 SBS도 한국도 아닌, SBS6라는 네덜란드의 지상파를



통해서 파일럿으로 제작·방영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 그 외 성과는?

포맷티스트의 IP를 유통할 국내 플랫폼과의 협업 및 유능한 기획자들과의 공동 개발이다. 포맷티스트는 유능한 기획자들과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중 특히 SBS의 사우였던 남규홍 PD와 공동 개발하여 TV조선에 제작·납품하고 있는 <부동산로드 이사야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6회의 파일럿 제작방영을 마치고 8월말부터 정규 편성이 확정되었다. 포맷티스트는 이 프로그램의 포맷 IP를 TV조선과 공유한다. 유럽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 하반기 계획은?

FC LAB에서 생산된 페이퍼 포맷들을 공격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목표다. 케이블 채널부터 종편, 지상파 경쟁 채널까지 가리지 않고 피칭을 시도할 것이다. 좋은 IP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내어, 궁극적으로 좋은 신인 창작자들이 더 많이 업계에 도전하게 만드는 선순환 에코시스템의 첫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포맷티스트는 그동안 국내 방송국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험이다. 사우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 사람

## “경쟁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름이 주는 ‘백’ 믿는다”

- &lt;그것이 알고 싶다&gt; 이동원 PD

지난 5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8년 동안 미제로 남은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을 조명한 뒤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를 토대로 7월 13일 방송된 후속편(‘복면 속의 이웃 사람-대구 총포사 살인사건 그 후’)에서는 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경찰, 검찰보다 든든하다는 찬사와 함께 유력 용의자와 끝없이 인터뷰한 이동원 PD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보통 담력으론 안 될 것 같다. 겁이 없는 편인가?**  
그 반대다. 귀산-좀비 영화도 못 보고, 아무리 유명한 미드라도 유행이 낡아하면 바로 꺼버린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름이 주는 ‘백’ 덕분이다. 조폭, 마약사범, 살인 용의자 등을 지금까지 취재를 하며 만난 그 누구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임을 밝히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경찰, 검사보다 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수십 년간 선배 PD들이 만들어주신 <그것이 알고 싶다>의 힘 덕분이다.

**이 사건은 워낙 잔인해서 제보받은 여러 용의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매번 떨렸을 것 같다.**

범인은 힘이 굉장히 좋고 총과 칼에 대해서도 능숙한 사람이다. 특히 칼을 사용한 부분은 방송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치밀했으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송을 준비할 때부터, 용의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오만가지 상상을 다 해봤다. 하지만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지목한 유력 용의자 이 씨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순간의 중압감은 워낙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건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PD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일 것 같다.

**인터뷰할 때 어땠나?**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인터뷰였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도 신경이 쓰였지만, 내 입을 통해 수사 관련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래서 한정된 질문과 표현만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 씨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의 경력과 가족사 등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도, 정작 사건과 관련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차례나 만났지만, 그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지금도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다. 빨리 수사가 진전되어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다.

**2월에 여청단을 방송했다. 여청단이 조폭 조직이다 보니 그 우두머리인 신 씨와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방송 후 신 씨가 SBS에 찾아와서 제작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까지 부렸다. 그런데 숨기는커녕 2탄을 4월에 방송했다. 어떤 생각이었나?**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여청단)은 경기도청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남성들의 단체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서울, 경기도 일대의 불법 성매매 시장을 장악한 범죄 조직이었다. 작년 연말부터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피해자 제보가 이어져 올해 2월 방송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오히려 여청단은 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전국구’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수사에 애를 먹었다. 여청단은 더 날뛰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그들의 힘을 보여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에도 맞설 수 있다는 배짱을 과시하려고 SBS 로비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여청단의 불법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들의 만행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으로 후속 방송을 준비했다. 여청단 간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형 성매매 업소를 파악하고, 경찰과 잠복 끝에 급습하여 일망 타진하는 등 그들의 만행을 낱알이 드러내는 방송을 제작했다. 그러면서 여청단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경기도청에서도 여청단의 허가를 취소했다. 여청단 관련 수사는 성매매



업계 전반으로 이어졌으며, 최근까지도 여청단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강력 사건의 용의자나 조폭들은 눈빛이나 행동이 다른가?**

괜히 욕설이 섞인 강한 말투로 말하거나 덩치 큰 부하들을 모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도 있고, 용꼬리나 잉어 지느러미 같은 다양한 문신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썬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힘을 함부로 과시하거나 흥분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특별할 것도 없는 눈빛과 낮은 목소리로 사람을 압도하고 주눅 들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여청단 사건의 신 씨다. 그런 ‘썬 놈’들을 취재하다 보면 질문도 제대로 못할 만큼 간담이 서늘해진다.

**앞으로 계획은?**

오랫동안 캐비닛에 방치된 미제사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좋은 리스너이자 인터뷰어, <정소민의 영스트리트>

파워FM(수도권 107.7MHz) 매일 오후 08:00~10:00

“그래요, 정말 잘 놀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있으면 홀린 듯이 라디오 채널을 107.7MHz로 고정하게 될 것이다. 목소리의 힘은 이토록 놀랍다. 별다른 수식어 없이,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다. 정소민 DJ(이하 약칭 썬디)의 목소리는 바로 이런 마법이 있는 목소리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정소민의 영스트리트>가 벌써 7개월을 넘었다. 그 사이 썬디의 많은 매력을 알게 되었는데 썬디의 매력이 곧 <영스트리트>의 매력이므로 자화자찬이지만 적어보겠다.

첫째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DJ다. 모든 DJ가 이 명제에 부합해야 하는데 마침맞게 썬디는 좋은 리스너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고, 좋은 질문은 먼저 잘 듣는 것에서 나온다. 청취자에게 온 문자 한 줄 한 줄 톱박톱박 읽으며 때로는 강단 있게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며 같이 울어줄 줄도 아는 DJ다. 둘째로 좋은 인터뷰어다. 항상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매번 손님들이 다르다면 사실 이것도 꽤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이제 8개월 차 DJ가 너무도 잘 해내고 있다. 취향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썬디는 어떤 게스트가 오든 - 나이가 많은 적든,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 대화를 끊이지 않게 잘 이어나간다.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서 게스트와 DJ가 다음 콘서트나 공연에 초대해 약속을 잡는다거나 서로 맛집을 공유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친근해져있다.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면 “오늘 처음 봤어요”라며 배시시 웃는 썬디. 그리고 얼마 후 그 가수의 공연에 가고, 서로 맛집을 공유하던 게스트와는 기어코 그 맛집에 같이 가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기는 치밀하고 집요한 썬디. ㅎㅎ



DJ는 잘 놀러왔다고 하고, 게스트와 청취자는 잘 놀다 간다고 하는 이상적인 핑퐁! 청취자도 어딘가에 자리를 펴고 귀 기울여 잘 듣고 있다가 “저희도 잘 놀다가요!”라며 즐겁게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난다.

썬디가 라디오를 시작할 때가 겨울이라, 겨울에 만든 엔딩 멘트지만 여전히 잘 쓰고 있다.

“내일도 우리 따뜻한 밤 같이 만들어요.”

- 유철민 PD(라디오2CP 소속)